

구라마집이 고향 쿠처

들어오는 길에 마주한 공안과의 실랑이 때문인지 뭔가가 가슴을 누르는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었다. 물론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즐겁게 시작한 일행도 있을 것이다. 쿠처에서는 중국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위구르어를 사용하는 한족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였다. 그만큼 쿠처에는 위구르족의 동질성이 강하다. 어제 저녁 들어오는 길이 공안이 행위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오늘은 이틀 연이어 무리한 일정 속에 숨고르기라도 하듯 쿠처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같은 집에서 숙박한다. 내일은 타클라마칸을 지나야 하니 하루 쯤 그럴 필요가 있다. 쿠처의 해발고도가 1,000m에 가까워서 그런지 아침은 선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처음 들른 곳은 쿠처의 이슬람사원(庫車大寺)이다. 이슬람사원은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옛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 쿠처는 신도시 중심으로 한족이 모여 살고, 외곽으로 위구르족이 모여 살며 그 사이에 접이지대로 구별된다. 큰 강(쿠차강이라 생각됨)이 위구르족이 사는 동네의 경계가 되는 것 같다. 이 사원은 1559년에 세웠다가 1927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28-1932년 사이에 아이리무야지가 나서서 쿠처, 신허, 사야, 베이칭, 룬타이 등의 신도들이 힘을 모아 새로 건설하였다고 한다. 쿠처대사는 폭 144, 길이 126.3m로 동시에 일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신강성 자치구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 한다. 사원 안 기도하는 곳(법당, 예배당 같은 곳)의 한 구석에 상여가 놓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상여를 두는 곳이 정해져 있지만 종교 시설에서 보기는 처음이다. 게다가 상여도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사원의 한 쪽에는 종교 법정이 자리하고 있다. 정교일치의 흔적인가 보다. 법정 건물 뒤의 베란다로 올라서니 어렵 듯하게 도시가 들어온다. 당연히 가까운 동네로는 옛 거리이고 그 멀리로 현대식의 높은 건물도 보인다.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시내로 돌아오려는데, 사원 입구의 삼거리에서 한 쪽 동네로



그림 1. 쿠처의 살벌한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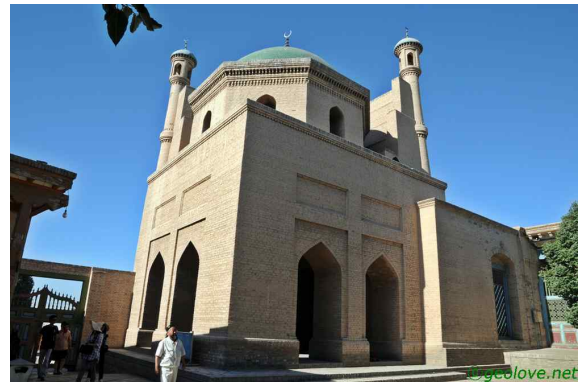


그림 2. 쿠처의 이슬람 사원



그림 3. 쿠처의 위구르인 거주지역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군인은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라고 한다. 아직도 왜 마을 입구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가이드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 탓할 수도 없고. 게다가 우리 가이드는 위구르족에 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듯하여 100% 믿고 들을 수도 없었다. 좁은 골목에 자동차가 들어가면 위험하고 하니 길을 막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지나는 길도 좁기는 마찬가지이다. 큰 강에 접하는 곳에 광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치 우리의 시골 장과 같이 북적거리고 있다.

돌이켜보니 아침에 이곳으로 들어오기 직전(그러니깐 강을 건너지 직전)에 삼엄한 검문이 있었다. 무장한 공안이 차에 올라서 우릴 쳐다 보고 갔다. 희안하게 그 공안은 위구르족으로 보였다. 일제시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역시 우리 민족이 검문도 했을 것이다. 아무튼 엄청난 수의 군인과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장한 채로 길을 막고 있었다. 광장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듯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무리의 군인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가 하던데니 공안의 장갑차 두 대가 광장을 돌면서 시위를 시작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 동네가 군복 차림이었다. 곳곳에 군복 차림의 무리가 시위를 하고 있다. 마을 약한 위구르인들은 시위한 기세조차도 펴보지 못할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가 하루 종일 쿠치를 누르고 있다. 키질석굴을 가기 위해서 시내를 빠져나가는 데도 공안의 검문이 계속되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마을 입구에서 왜 마을 사람들이 검문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도시를 조금씩 벗어나면서 시위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듯하였다. 도시를 벗어나 30여분을 달리니, 신비의 대협곡은 아니지만 신비의 대협곡이 시작된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갖은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남겨진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나 있다. 이제 머지않아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간의 손길이 덜 닿은 듯하다. 안타깝게도 우리 일행 중 몇은 자동차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도 황홀한 경관이였다. 자동차가 그곳을 출발하였지만 절경은 계속되었다. 5분쯤을 달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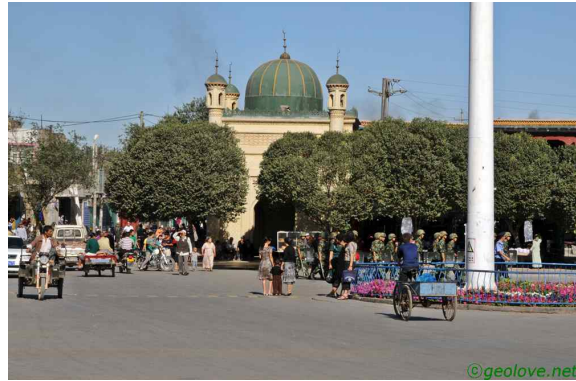


그림 4. 북적거리는 광장과 군인



그림 5. 광장을 시위 중인 무장 공안



그림 6. 작은 신비협곡



그림 7. 포탈라 궁과 단층지형

을까? 포탈라궁이라는 절경이 기다리고 있다. 포탈라궁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지 아닌지 모르지만 절경이었다. 게다가 수평지층과 수직 지층이 만나고 있는 것이 더욱 볼만하였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산 위에서도 낙타풀은 자라고 있었다.

비포장도로도 한 참을 달렸지만, 짜증스럽지 않았다. 한 참 도로공사 중이었다. 그 바람에 우리 차는 하천을 따라 달렸다. 바로 와디를 따라서 차가 달리는 것이다. 가늘게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어지지 않았다. 조금 흐르다 마르기도 하고, 다시 지하수가 나오는 곳에서는 물길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제 협곡에서 벗어나는 가 싶더니 신비 대협곡과 갈라지는 곳이다. 멀리 천산이 다시 보인다. 나는 이년 전에도 이런 경관을 사진에 담고 싶어 안달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천산을 오르는 공기가 응결하면서 눈을 내리는데 그것이 쌓여서 만년설이 된 것이다. 그 만년설이 서서히 녹으면서 주변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형이 기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경관이다. 마침 멀리 천산 위로 구름도 발달하고 있다. 멀리 작은 오아시스도 보인다.



그림 8. 작은 신비협곡 2



그림 9. 사막과 천산

한 참 태양이 이글거리는 오후 1시 30분 무렵에 키질석굴에 도착하였다. 석굴 앞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항상 시내에서 먹던 점심을 어떤 일로 관광지에서 먹게 되었다. 약간 걱정스러웠다. 우리나라 관광지에 있는 식당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안은 의외로 깔끔하였다. 게다가 음식을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항상 환한 웃음으로 음식을 들고 왔다. 이번 답사에서 처음 맛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괜히 마음이 즐거웠다. 화장실도 그런대로 깨끗하였다. 역시 관광지라 그런가?



그림 10. 키질석굴

석굴을 오르는 입구에 구라마집의 동상이 떡 버티고 있다. 구라마집은 쿠처사람으로 언어에 능통하여 불경을 많이 번역한 승려였다(그는 승려이면서 결혼도 하고 술도 마셨다고 한다). 석굴에 입장하려 하니 사진기는 물론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한다. 나야 석굴에서 별로 찍으려는 것이 없지만 석굴에 올라서서 아래 보이는 오아시스를 담으려 했는데. 화가 치밀었다. 한 계단씩 오르면서 화도 누그러졌다. 석굴에 들어서서 보니 그러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4대 석굴이라고 하는데, 이년 전에 들렀던 둔황의 막고굴과는 크게 떨어져 보였다. 하지만 사용된 안료나 불교 설화 등이 남아 있어서 문화적 의미가 크다고 한다. 또한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석굴이라고 하며, 3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9세기까지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어디서나 그러하듯 회교도들에 의해서 상당히 파손되었고, 그나마 보존이 잘 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다만, 조선족인



그림 11. 구라마집 동상

한락연씨가 이 석굴에 심취하여 조사를 하였고, 모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살아있었다면 막고굴 관리소장쯤은 했을 것이라고 한다. 어는 굴엔가는 그가 이 석굴을 조사한 내용과 보존해야 할 것을 호소하는 글이 남아 있다.

석굴을 돌아보는 데 한 시간 가량이 걸렸다. 기온이 몇 도인지는 몰라도 무척 뜨거웠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더운 열기가 숨막히게 할 듯하였다. 그렇게 간절하게 물 한 모금이 그리웠다.



그림 12. 오아시스

석굴을 나오는 길에 오아시스를 보았다. 고개 마루 직전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마른 목을 달래주는 듯하였다. 둔황 명사산의 월야천 오아시스 다름으로 그럴 듯한 오아시스였다. 기사에게 미리 부탁을 해놓은 터라 군 소리 없이 차를 세웠다. 이런 곳을 여행하려면 돈이 소중함을 자꾸 깨닫게 된다.

다음 행선지인 쭈바시 고성으로 가려 나오는 길에 아까 그냥 통과하였던 절경지에 차를 멈추었다. 역시 점심 때의 돈의 효력을 보고 있다. ‘피라미드 자연 경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지형의 형성 과정을 잘 모르지만, 어쩌다 흐르는 물과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같다. 피라미드와는 차이가 크지만 그 형태가 비슷하다. 높은 봉우리를 하나 골라서 오르려 하니 온통 바람에 날리는 먼지 흙투성이이다. 봉우리에서 잘 못 밟으면 미끄러질 듯 푸석푸석하고 마치 밀가루 더미 위에 올라 선 느낌이다. 역시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

쿠처로 돌아오는 길에 쭈바시 고성을 들렀다. 고성이라기 보다 절터로 보이며 그 흔적만 있을 분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저 과거에 어떤 넓은 건물 터로구나 할 정도일 뿐이다. 그 북쪽으로는 천산 줄기로 막혀 있고, 산줄기 바로 앞에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 같다. 거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수로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다. 절터는 쿠처강에 의해서 둘로 나뉘고 있다. 쿠처강에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지만 건조 지역의 하천 특색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한꺼번에 포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도가 집중적으로 한 곳을 깊게 파지 못하였다. 그러니 하천이 깊이는 없지만 넓게 퍼져 있다. 하천을 건널 때 보니 인위적으로 하도를 만들어 놓았다. 제방을 쌓았는데, 그 안이나 밖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이다. 건물의 흔적은 자세히 보니 전에 만리장성을 쌓을 때 사용한 방법으로 쌓은 듯하다. 흙과 짚 등을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져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 층층이 쌓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절터에 보이는 초록색은 모두 야생수박이다. 언젠가 TV 다큐에서 보니 그 열매가 바르면 약이되지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시내 주변의 작은



그림 13. 피라미드 자연경관(야단)



그림 14. 쭈바시 고성의 흔적과 야생 수박



그림 15. 쭈바시 고성과 와디

마을은 우리의 시골과 비슷하다. 역시 사람들은 낯선 외지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겼다. 한 집에 들러서 만국 공용어인 우리말로 집안을 보아도 되겠냐고 하였더니, ‘아빠!’라고 소리쳐 깜짝 놀랐다. 아빠가 나올 줄 알았더니 낮잠을 주무신 것으로 보이는 엄마가 나왔다.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부자집을 찾았는지 몰라도 집은 넓고 있을 것은 다 있었다. 마당 한 가운데로 수로가 지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에 숙소 가까이의 장을 나갔더니 역시 모두 우리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모두 사진을 같이 찍자고 달려든다. 숙소 바로 옆은 미장원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흥등가인 것 같다. 여자들의 옷차림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 밤중에 헤프닝도 있었다. 오전에 옛거리 광장에서 만났던 공안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찍었다고. 물론 모두 지우라고 했지만, 남길 사진은 다 남겼다. 하지만 일정 내내 짐이 되었다(가이드에게).

내일은 타클라마칸을 넘는다. 이번 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림 16. 위구르인 가족의 내부